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순천시,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해 첫둥이 탄생

조충훈 시장 병원 방문 축하 격려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해에 순천시 첫둥이가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탄생했다.

순천시 새해 첫 둥이의 주인공은 이육재(27세) 씨와 이준수(28세) 씨 사이의 첫아이로 1월 7시 59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3.01kg의 남자아이이며 산모와 아이는 건강하다.

아이 부모는 "우리 꿈나무(태명)가 건강하게 태어나 줘서 고맙고 앞으로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며 기쁨을 표했고 "순천의 첫 둥이 주인공이 돼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매년 '출생 봄' 조성을 위한 축하 이벤트로,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첫 번째 탄생한 아이와 산모에게 축하 격려를 함으로써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조충훈 시장은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에 순천시 첫 번째 아이로 탄생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의 빛과 같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순천시의 올해 첫 아기의 환한 웃음을 시작으로 새해에는 더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한 출산축하용품 로컬푸드상품권과 육아용품꾸러미를 온 시민의 마음을 담아 첫 출생아에게 전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규시책으로 복지부 승인을 받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부분)을 전액 지원하게 됐다"며 "순천형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임부와 아이가 행복할 한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언제든지 민의를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



화순군은 새해부터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입원, 재학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현재 관내 86가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를 선택 이용이 가능하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30%~80%까지, 연간 600시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새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이용자도 1월 24일까지 재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비를 해당 가정으로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재정분석결과 최상위 등급

전남 유일 시 단위 최상위 '가' 등급

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2017년에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 기준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천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전남에서 시 단위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사례는 순천시가 유일하며, 군포시, 과천시, 진주시 등과 함께 종합점수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는 순천시가 동종 자치단체보다 부채비율, 지방채채널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수입 등에 힘입어 경상세외수입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인 분석이다.

또한 2004년부터 일반회계를 지배채 지입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채무에 대해서는 사후로 현실화, 미수금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노력과 순천만국가정원,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등 입장료 수입 증가 등 지속적인 생태·관광정책 추진을 통한 세입확충 자구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며 인정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과 함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나주시는 2018년 1월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현장 체험 홍보 및 접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정수원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합법외국인 근로자, 개인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도 '광양학사' 입학생 60명 모집

서울·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신입·재학·대학원생

광양시가 2018년도 광양학사(서울시 강서구 수명로길 131)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총 60명(남 30명, 여 30명)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학사는 시가 지난 2014년부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편학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자격 요건은 선발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누구나 가능하다.

또 지방대학생이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으로 재학할

경우와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관련 연수 또는 실습을 6개월 이상 받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생은 기숙사 운영비로 월 12만 원을 부담하면 되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 1인당 연 250만 원을 지원한다.

정용균 교육지원팀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양학사를 통해 광양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원룸 등의 주거비 부담 감소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도움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인사 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철저, 고용복지+센터 홍보 강조



광양시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단·소장과 시 산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각 부서별 현안업무를 서로 공유하며 시민 행복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형복 광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 따

른 후속 인사를 오는 12일까지 마무리 하겠다"며, "인사로 인해 각 부서가 참신한 가운데 2018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각 부서별 현안업무를 서로 공유하며 시민 행복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연말에 개소한 광양고

용복지+센터가 개소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서비스기관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복지+센터가 이제 막 사무실을 개소한 만큼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며, "부서별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어린이 전용도서관 광양희망도서관이 전국에서 견학 대상이 되는 관광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을 안길 보수 등 소규모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므로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딸기,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임삼